

아주경제

'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한강공원의 풍경' 노충현 '살풍경'展

등록 2013-06-18 09:46

수정 2013-06-18 09:46



Choonghyun Roh 산책 2013 oil on canvas 227 x 162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라는 의미의 '살풍경(Prosaic Landscape)' 연작을 선보이는 작가 노충현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오랫동안 거닐며 지켜본 한강시민공원의 한적한 풍경 25점을 전시한다.

계절의 변화로 인한 극적인 풍경들로 구성됐다. 전시장 1층 안쪽에는 밤의 풍경들이, 주 전시공간에는 한 겨울의 눈에 덮인 풍경들을, 2층에는 여름의 장마철 풍경을 담은 그림이 전시됐다.

'발견의 힘'. 순간순간의 풍경-장면은 그 순간 인상과 곧 사라져 버릴 듯한 기억과 감정들을 섬세하고도 예민한 회화적 시선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일반인에게 '산책의 공간'이었던 그림속 한강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웬지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

어떤 사람이 눈 덮인 흰 길을 걷어가는 장면(산책)과, 눈으로 덮인 '편의점'은 분명 현실의 공간인데 꿈의 공간(허구)처럼 비밀스럽고 몽환적으로도 보여진다.



편의점 2013 oil on canvas 112 X 145.5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양가주망이다. 그의 회화가 담아내는 한강 계절에 따른 자연적 풍광과 사회현상에 따른 인공적 풍경들의 조합은 서울이라는 도시 안의 공간이 지닌 중층적인 의미들로 이어진다.

2005년의 첫 개인전 '살풍경'이 서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의 삶에 미쳤던 상실의 정서를 부재의 풍경으로 담았다면, 2006년의 동물원 <자리>연작은 아무 동물도 없는 우리를 그림으로써 정체성이 모호한, 흡사 근대성이 스쳐 지나간 텅 빈 '자리' 같은 공간을 표현했다. 세 번째 개인전 <실밀실>에서는 군사독재시절의 역사적 시간이 지닌 공간의 모습을 회화로 기록함으로써 작가 개인이 지나온 역사에 대한 소회를 다루었다.

<살풍경> 연작에서는 공간의 구체적인 상황, 장소적 특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질감 혹은 흔적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적 삶의 조건들을 환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때로는 정치적인 공간으로, 또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발견할 수 없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읽힐 수도 있다. 작가는 이러한 모호하고도 흐릿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동시대의 도시 풍경이 지닌 중의성을 담아낸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5년의 개인전 <살풍경>을 시작으로 도시 속 메마른 풍경을 재현하며 상실의 정서, 공간의 장소성, 제도적 관습 등과 같은 사회적인 발언을 문학적인 정서로 화

꼭에 담아내고 있다. 전시는 7월 14일까지.(02)735-8449



Choonghyun Roh여름의 끝 3 2013 oil on canvas 115 X 115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

[©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AJU BUSINESS. ALL RIGHTS RESERVED.